

LCD, 국내기업 경쟁력 우위 유지

9월1일 삼성전자 주가 3.63% 상승 ... 일본3사 통합 우려 목소리도

일본 전자기업 Toshiba, Sony, Hitachi가 LCD(Liquid Crystal Display) 합작기업을 출범시킨다는 소식에도 국내 LCD 관련주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합작기업이 출범해도 국내기업들의 세계시장 영향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Toshiba, Sony, Hitachi 3사는 9월1일 중소형 LCD 합작기업 <Japan Display>를 2012년 봄까지 출범시키고 2011년 말까지 사업부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9월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2만7000원(3.63%) 오른 77만원에, LG디스플레이는 450원(2.15%) 내린 2만450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형 LCD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중소형 LCD 시장에서도 악재를 만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LCD 시장과는 달리 스마트폰의 약진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중소형 LCD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해 국내기업들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합작기업이 출범해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세계 LCD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LCD 패널 시장은 8월 중순 기준 삼성전자가 점유율 27.6%로 세계 1위, LG디스플레이는 26.4%로 2위를 차지해 확고부동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9/02>